



오는 28일 창단연주회를 갖는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전용 연습실에서 훈련하고 있다.

## 광주에 민간오케스트라 떴다

‘광주에 새로운 오케스트라 문화를 만든다.’

클래식 공연 기획자 백홍승(46)씨는 오래전부터 민간오케스트라를 꿈꿔왔다. 조선대학교에서 플루트를 전공하고, 주제예술대학원에서 ‘한국교향악단 운영 체계 분석’으로 예술행정경영 석사학위를 받은 백씨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광주

전임지휘자로는 현재 도쿄프리암 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가토 아쓰시가 참여하며 후미에 에이누, 데니스 카를로프, 체스노코바 나데초다, 폴 자리볼렌코 등 외국인 연주자 10여명

도 합류했다. 예술총감독을 맡은 백씨는 연주자들을 일일이 만나 입단 의사를 탐색해왔다.

다국적 단원 ‘광주내셔널 필하모닉’ 창단… 내일 첫 공연

내달 사단법인 출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해 뿐”

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도쿄프리암 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맡으며 교향악 단 암부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

연주자 확보, 운영비 등 난제가 많았지만 백씨는 결국 꿈을 이뤘다. 그는 50인조 규모의 민간오케스트라 ‘광주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창단연주회를 준비중이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광주 지역의 젊은 연주자 35명을 포함, 일본과 러시아 연주자들 등 다국적 멤버로 구성돼 있다.

광주내셔널필은 다른 민간 오케스트라와 달리 다음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오케스트라 운영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지남철(조선대 교수)씨 등 7명의 이사진이 맡게 된다. 또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성안교회 비전센터에 사무실과 전용 연습실도 마련했다.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창단연주회의 레퍼토리는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아리랑 판타지’, 브립스의 ‘헝가리무곡 1, 2, 5, 6번’이며

현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키야마 아키코가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을 협연한다. 피날레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이어 9월20일에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 미단조’(협연 후미에 에이누) 등을 연주하는 두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리며 21일과 26일에는 다양한 솔리스트와 함께 제4회 광주국제음악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디션을 통해 젊은 연주자를 발굴, 함께 협연 무대를 갖는 ‘신성 콘서트’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범인 오케스트라가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힘들지만 광주에 새로운 오케스트라 문화를 만드는 생각으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백씨는 특히 “갈곳이 마땅한 젊은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 것 같아 뿐만 아니라”고 말했다. gnop.net. 문의 062-953-39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김훈, 네티즌 선정 ‘올해의 작가’



7%로 뒤를 이었다.  
함께 진행한 ‘한국의 젊은 작가’ 부문 투표에서는 ‘원더보이’를 냈던 소설가 김연수가 8.5%의 지지를 얻으며 ‘두근두근 내 인생’의 소설가 김애란(8.4%)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연합뉴스

‘킬의 노래’ ‘흑산’의 소설가 김훈이 네티즌들이 뽑은 올해 한국의 대표작가로 선정됐다.

26일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지난 2~25일 실시한 제9회 ‘네티즌 추천 한국의

대표작가’ 온라인 투표에서 김훈은 전체 응답자 3만8175명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999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소설가 이문열이 8.9%로 2위에 올랐고, 시인 고은과 소설가 박범신이 각각 8.8%, 8.

## 목포서 한판 놀아볼거나~

마임·전통연희·서커스 등 마당극 달인 총출동

29일까지 세계마당페스티벌… 70여 작품 선보여

마당극, 마임, 전통연희, 퍼포먼스, 서커스, 콘서트….

극단 갓들이 주최하는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이 오는 29일까지 목포 로데오 광장 등에서 열린다.

‘장바닥에 비단이 깔리는 날, 마당은 판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목포 시내 차 안다니는 거리와 오거리 일대로 행사 장소를 옮겨 장터 형식으로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만날 수 있는 작품 수는 70여 개에 이르며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한국 마임계의 산증인인 유진규, 기타리스트 김광석, 밴드 킹스턴루디스키 등 유명 아티스트들도 만날 수 있다. 또 영남 떡배기 춤, 경상도 보릿대춤, 속대쟁이 놀이 등 다양한 민족연희 공연이 진행된다.

27일에는 마임극단 키키리키의 ‘빵빠레 오락실’, 유진규네 몸짓의 ‘신칼’, 국악콘서트 수현 김찬수 컵파니의 ‘빼애로 익살쇼’ 등

이 펼쳐져며 일본 나주마루의 재팬 저글링, 멕시코 마리아치의 라틴아메리카 음악 공연이 이뤄진다.

28일에는 마임극단 이슬길의 ‘허수아비’, 기타리스트 김광석의 ‘흔의 율립’, 극단 필통의 ‘불싸움 3-아빠 일어나세요’, 연희프로젝트 소용대의 ‘집색극 화가의 사랑’, 타악그룹 얼쑤의 ‘인풍’, 마임극단 마음과 같이의 ‘괴에로의 외출’, 큰돌문화예술센터의 ‘마당극 흥부네 박력쳤네’, 일본 오큐타 마사시의 ‘비누방울쇼’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유전그룹 오감도의 ‘여용밤에 일탈’, 타악프로젝트 그룹 타의 ‘가위치기’, 극단 결의 ‘마당극-춤축’은 고래마을 장생포’, 목포시립무용단의 ‘챙강춤’ 등을 공연된다.

그밖에 오거리문화센터에 마련된 어린이극장(현대 1만원, 예매 7000원)에서는 국악놀이연구소 ‘안녕 핫도그DOG’, 한일합작 판



토마임 ‘장난감연구실’ 등을 공연한다.

공연 관람자들은 ‘굿џ문화’(Busking Good money)에 동참할 수 있다. 굿џ은 거리에서 관객이 공연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바구니에 돈을 넣어주는 나눔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축제장을 방문, 돈을 칩(기념주화)으로 환전해 마음에 드는 공연자에게 굿џ하면 된다.

www.mimaf.net. 문의 061-243-97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예술도 팔아요”

27~28일 대인예술야시장

### 같은 시간에 있던 것처럼…

쉰스터 사진전 내달 1일까지 무등갤러리

하나의 사진일까. 합성으로 만들어진걸까. 우연히 찍힌듯한데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게 작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 것은 아닐까.

다양한 의문을 갖게 하는 실험적 사진작가 쉰스터(Schinster)의 사진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쉰스터는 본명이 신재희 작가가 어린 시절 미국에서 또래 아이들에게 불리던 별명이다.

무등갤러리는 다음달 1일까지 쉰스터의 대표 시리즈인 ‘스트리트 드라마’(Street Drama) 전을 연다.

쉰스터는 지난 2010년 7월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사진 공모전 ‘포맷(Format)’에서 최고상인 ‘트로이카 익스포저 어워드’(Troi-ka Exposure Award)를 수상하며 실험적인

한국인 사진작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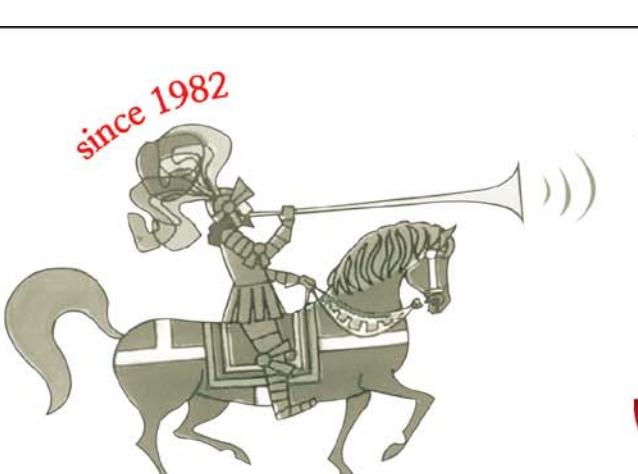
당시 그는 일본 요코하마 한 거리에서 카메라를 고정시켜 사람들을 각각 촬영한 다음 합성해 같은 시간에 존재했던 것처럼 연출해 ‘순간의 집합’을 표현한 ‘Rush OF Women’이라는 작품으로 최고상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도 영국·한국 등 전 세계 특정 장소를 골라 카메라를 설치한 뒤 1~2시간 동안 지나가는 행인 수백명을 촬영해 편집한 ‘스트리트 드라마’ 연작 시리즈 10여점을 선보인다. 한 장소에서 찍은 수백명의 사진 중에서 사람들을 고르고 빼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것처럼’ 한 화면에 합성해 만들어내는 작가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문의 062-236-2520. /김지율기자 dok2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쉰스터작 ‘스트리트 드라마’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기간: 2012년 3월 15일 ~ 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 점 062\_227\_9940 •충장점 062\_227\_9970  
•목포점 061\_262\_9200 •장흥점 080\_222\_9975  
•서울점 02\_765\_9940 •순천점 061\_752\_9940

**던롭필로 라텍스 침대 150평**

세계최고 수면과학 **Duniopillo**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던롭필로 라텍스 침대 150평

면적  
머리 5% 어깨 15% 척추 60% 엉덩이 15% 허벅지 5% 종아리 5% 다리 5%

수면시 힘의 분포도



쇼핑몰 [www.hong79.com](http://www.hong79.com)(홍친구닷컴)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50평 / 매트리스 체험관 오픈!

☎ 1899-0240

**홍** **스페이스** SPACE